

“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

문체부 국민인식조사… 국민 80% “친일잔재 청산 안돼”

우리 국민은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유관순(43.9%) 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 독립/해방/광복(9.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 하면 ▲김구(31.4%), ▲상해(11.4%), ▲이승만(2.7%) 등을 먼저 떠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은 ‘자주독립’ (42.9%), 3.1운동 정신 계승 방법은 ‘친일잔재 청산’ (29.8%)

3.1운동 정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독립(42.9%), ▲애국/애족(24.3%) 등의 순으로,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친일잔재 청산(29.8%),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의 순으로 답했다.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41.2%), ▲본격적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19.4%)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중심점 역할(29.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설립(28.0%)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8명(80.1%) “친일잔재 청산 되지 않았다”

친일잔재 청산 여부에 대해서는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0.1%, ▲‘청산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5.9%였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서(48.3%)라고 답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 69.4%, ▲‘호감이 간다’ 19.0%였으며, ‘호감이 간다’는 응답의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사죄와 보상 등을 재검토(40.6%), ▲역사 공동연구(25.4%)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묻는 질문에는 ▲사회복지가完비된 나라(25.8%),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5.2%),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23.2%) 순으로 나타났다. 100년 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정치·경제적 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상위권 위치에 있을 것(5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0년 후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경제성장(23.5%), ▲국민감동 해소(15.9%), ▲남북군사 대치 해소(13.8%), ▲국제적 영향력 증대(11.7%), ▲민주주의 발전(11.0%), ▲보육/의료 등 복지제



도 고도화(11.0%) 순으로 답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정 유무선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3·1운동 국내외 보도물 100건 공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4월 1~12일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광장 마당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 언론전시회를 연다. 3·1운동 등 항일투쟁과 임시정부 관련 당시 국내외 언론보도물(기사·사진·영상) 100여점이 공개된다.

본 전시회에 앞서 온라인 전시(independence.kpf.or.kr)도 펼쳐진다.

1차로 ‘항일독립신문과 태극기’를 주제로 26일 문을 연다. 2차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3·1운동’을 주제로 3월 중 오픈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특히 2차에는 미국에서 직접 수집한 당시 언론기사와 사진 등이 대

거 공개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1차 공개되는 자료는 2009년 5월 진관사 철성각 해체,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항일독립신문 6종 19점과 불탄 흔적의 태극기 1점이다. 재단은 진관사를 방문, 원본 유물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진관사 원본 스릴카메라 촬영본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화가 이현세의 웹툰 ‘초월 스님’도 공개한다.

진관사 자료는 세계 한국대사관과 문화원에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어와 현지 언어로 번역돼 3·1절에 맞춰 전시될 예정이다. /뉴스



국립임실호국원이 3·1절을 맞아 3월 28일까지 제2충령당 로비에서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

국립임실호국원, 3·1운동 기념 특별사진전 개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3월 28일까지 제2충령당 로비에서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로 성묘객을 대상으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난 100년 한민족의 치열한 여정을 담은 사진으로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잇는 깊은

뜻을 담아 진행했다.

윤명석 호국원장은 “100년 전인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알렸듯이, 호국원 직원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열들의 민주·평화·독립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선혜·황수미, 民國 노래하다

3.1운동·임정 100주년 음반 참여

소프라노 임선혜(43)와 황수미(33)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100주년 기념 앨범 ‘민국(民國)’에 참여했다.

임선혜는 ‘독립군의 아내’ 음원을 불렀다. ‘가리워진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주제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기억되지 않은 이름들과 그들에 대한 약속을 노래했다.

황수미는 교향곡 ‘민국 100th 애니버서리’ 3악장에 참여했다. 이 곡은 이번 앨범의 총감독 MGR(박용찬)이 대표 작곡했다.

1악장 건곤간리 ‘디 오리진’, 2악장 꺾이지 않는 민족 ‘얼라이징’, 3악장 ‘컨트리 오브 피플’로 구성했다. 민족의 기원과 역사를 이룬 것은 국민, 수많은 의인과 영웅에 대한 감사와 추모, 민족의 번영과 염원을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임선혜와 황수미는 한국 클래식음악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다. 올해 유럽 데뷔 20주년을 맞는 임선혜는 뉴욕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파리오페라, 베를린국립오페라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애국가를 독창했다. 최근 국내 뮤지컬 ‘팬텀’에 출연했다. 3월 라 푸라 델스 바우스 제작 ‘친자랑조’, 르네 아콕스 지휘의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무대에 오른다.

황수미는 2014년 세계적인 음악 경연대회인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독일 본극장의 솔리스트를 거쳐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스타덤에 올랐다.

‘독립군의 아내’와 ‘민국 100th 애니버서리’는 26일 공개됐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합창단도 참여했다.

앞서 추진위는 ‘피겨여왕’ 김연아, 밴드 ‘국카스텐’의 하현우 등이 참여한 3·1운



황수미

임선혜

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음원 ‘3456’을 지난 18일 선보였다.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의 역사적 사건의 앞 숫자를 따서 지은 노래다. /뉴스

남원시, “문화누리카드로 삶의 질 높이세요”

남원시가 6세 이상(2013.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해야 하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www.mnu.rilkr)도 가능하며, 3월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를 통해 전화로 재충전할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액은 연 8만원

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와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케이블TV수신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발급기간은 11월30일까지이며, 연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올해부터는 카드를 발급한 뒤 2년 동안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급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 모두가 카드를 발급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